



광릉숲 둘레길

3.4코스

꼼꼼한 안내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광릉숲과 둘레길

광릉숲은 2010년 6월에 다양한 생물들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설악산, 제주도, 신안 다도해에 이어 국내에서 4번째로 선정됐으며
수도권 지역이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있는 곳입니다.
천연기념물 218호 장수하늘소숲 비롯해 끼막떡땀구리,
판색조 등 5,360여종의 동식물과
20여종의 천연기념물이 살고 있는 생명의 보고인 광릉숲은
우리가 보전하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미래 유산입니다.
그곳을 둘러 싸고 있는 여덟 길 중에서 두 길을 소개합니다.



꼼꼼한 안내지는

광릉숲 둘레길을 걷는 분들의 불편함을 덜어 드리기 위해 제작했습니다.
둘레길 코스에 있지 않지만, 잠시라도 발길을 이어 둘러보면 좋을만한 몇 곳을
추가했으니 마음 가는 데로, 발길 닿는 데로 둘러보세요?

순서

- 02 순서
- 03 준비하기
- 05 3코스 용암산정상길
{무지랭이약수터-무림리(내루골)}
- 15 4코스 1구간 무림리길
{무림리(내루골)-차도(무봉리)}
- 21 4코스 2구간 비득재길
{차도-비득재}
- ※코스에 있는 길 이름은 꼼꼼한 안내지를 만든 분들이
걸으면서 느꼈던 특징을 살려서 지었습니다.
- 29 광릉숲 둘레길8코스 전체 지도





꼼꼼하게 준비하기!!

둘레길 난이도를 확인해주세요!!

- 난이도** ★☆☆☆☆ 하 : 쉬워요!
- 난이도** ★★☆☆☆ 중 : 조금 힘들어요!
- 난이도** ★★★☆☆ 상 : 힘들어요!
- 난이도** ★★★★☆ 최상 : 당신은 강철 체력!

둘레길 소요시간

운동량이 적은 성인을 기준으로 했어요.

운동화 & 트레킹화

둘레길 구간 마다 높낮이가 다르지만 운동화 보다 트레킹화가 편해요.

식수 & 간식

둘레길에는 편의시설이 전혀 없어요~
중간중간 마을을 이용하세요. 식수와 간식은 미리 준비하는 센스!
산행중 간식은 체력이 소진되기 전에 드세요.

일회용 물품 & 쓰레기

둘레길에는 화장실도 쓰레기통도 없어요.
우리도 LNT를 실천해요!!
L.N.T(Leave No Trace) : "흔적 남기지 않기"

둘레길 시작하기전 소중한 팁



- * 3코스는 처음부터~끝까지 의정부 소풍길로 되어 있어요.
- * 3코스는 생태를 관찰하기에 좋은 길입니다.
- * 4코스도 이정표 잘 확인하세요. 3코스와 4코스의 경계가 애매합니다.
- * 4코스는 도로를 건너는 구간이 2번 있습니다.



준비완료!! 이제 출발할까요?





23번, 35번 의정부 코스트코 앞 하차해서
무지렁이 약수터 방향이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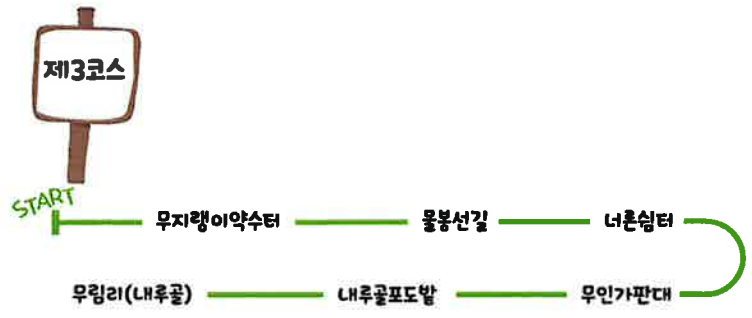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산9-1

산이도 ★☆☆☆ 하 : 처음부터 끝까지 경사가 완만해요!

길 찾기 어렵지않아요

지도 중요 팁

- ▶ 3코스는 처음부터~끝까지 의정부 '소풍길' 로 표시되어 있어요.
- ▶ 내루굴 포도밭을 지나 4코스 이정표를 확인하세요.
- ▶ 4코스 구간은 조금 길고 가파른 곳이 많아 마음 단단히 먹고 걸으세요.



무지랭이 약수터 - 완전히 바뀌어 버린 이름

고개를 넘어가도 인가가 없어 더 이상 갈 데가 없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무지령(無至嶺)' 이었는데 그 의미가 엉뚱하게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잘못 전달되어 원래 무지령이 어느새 무지랭이가 되어버렸다. 고개 넘어 인가가 없었던 이유는 당시 인근에 세조의 광릉이 들어서면서 일대의 산들이 광릉숲으로 묶여져, 그 어느 곳보다 훨씬 더 엄하고 철저하게 사람들의 출입과 간섭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용암산 쪽에서부터 흐르는 이곳의 물은 부스럼도 낫게 할 정도로 차고 너무 좋아 '젓물'이라고 부를 만큼 민락동 사람들이 예전부터 신성시하였다고 하는데 대단히 개발이 이루어지고 나서부터는 그 신성함이 사라지는 듯해서 커다란 아쉬움을 주며 현재는 사용이 불가한 약수터이다.



의정부 소풍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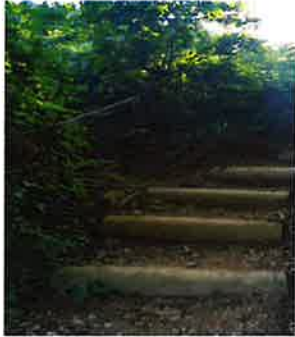
의정부 대표시인으로 불리는 천상병님의 '귀천' 이란 시에 보면 -마지막 13년을 보낸 생가가 의정부 장암동 수락산 자락에 있었다고 하여 이땅의 삶을 아름다운 소풍으로 표현 한데서 따온 길 이름이 '의정부 소풍길' 이라 한다.

소풍길은 의정부시를 둘러싼 도봉산, 흥복산, 천보산, 부용산, 수락산 등을 연결한 6개의 대구간과 도심을 흐르는 부용천과 종량천 등을 활용한 3개의 소구간으로 총 9개의 구간이 있다. 그 중 대구간 4코스 삼림욕길 중 무지랭이계곡, 용암산, 내루골포도밭이 광릉숲 둘레길 3코스와 맞물려있다. 소풍길을 걷다 광릉숲 둘레길도 걸어보고 광릉숲길을 걷다 소풍길 깃말이 반갑게 맞아 주면 소풍 떠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 봐도 좋을 듯 하다.

우리는 늘 길을 걸으며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생길이라 부르기도 한다. 때로는 오르기 힘든 오르막길이 앞에 있기도 하고 인생의 내리막 길을 맞이 할 때도 있지만 시인의 이야기처럼 이 세상을 아름다운 소풍길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래본다.

그러나 광릉숲 둘레길의 3코스 구간이면서 둘레길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걷는 이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歸天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스타는
 이슬 더붙어 손에 손을 잡고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용암산(龍岩山)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용암리와 진접읍 부평리, 의정부시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소리봉 또는 물푸레봉이라고도 한다. 높이는 480m로 광주산맥의 지맥으로 수리봉(536.8m)과 능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용암산이라는 이름은 산에 바위가 많고 산 모양이 용처럼 생겼다거나, 용처럼 생긴 바위가 있다고 하여 생겨났다고 한다.

산을 오르며 용을 닮은 바위를 찾아보는 재미도 느껴보면

좋을 듯 하다

정상에는 산불감시초소가 있고 오른쪽으로 계속 내려가면 국립수목원의 전망대가 있는 임도(林道)에 닿는다. 주변에 국립수목원, 광릉, 봉선사, 휘경원, 크낙새 서식지, 밤섬유원지 등의 관광지가 있다.



다래향 - 무인 가판대

3코스를 내려와 4코스로 가는 방향에 제철 농산물을 무인으로 판매 하는곳



서어나무

광릉숲이 숲의 마지막 단계임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나무이다.

숲이 시간이 지나며 겪는 변화를 '숲의 천이'라 하고 그 마지막 단계에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한 숲을 극상림이라고 부른다.

이 극상림을 구성하는 대표나무가 서어나무이다. 주로 산속이나 평지에서 자라며, 한국의 중부 이남에 널리 분포되어있다.

나무 껍질이 울퉁불퉁한 근육 같아 영문명으로 '머슬트리' 라고 하고 겉과는 달리 속 조직이 부드럽고 깨끗해너 유충의 서식지가 되어주며 혼자 보다 무리진 군락으로 사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광릉숲 둘레길을 걸으며 서어나무를 찾는 것도 즐거운 산행이 될 것이다.



너른쉼터

3코스 초입에 있는 잘 조성된 쉼터



내루골 포도밭

3코스에서 만난 식물들

무지렁이 약수터를 지나면서 물봉선이 활짝 피어 길을 내어 주고 있다
조금 더 가다보면 이삭여뀌, 며느리 밀싹개, 까마귀밥, 쑥부쟁이, 누리장나무 등이 즐지어 있다.

물봉선

- 봉선화는 봉숭아꽃의 우리말이며 달팽이처럼 꽃 끝부분에 꿀이 있어 손으로 열매를 특 건드리면 터지면서 씨가 퍼지고 긴빨대 입을 가지고 있는 나비나 나방이 날아온다.

이삭여뀌

- 꽃이삭이 범씨처럼 핀다고 이삭여뀌이며 꽃이 굉장히 작다
- 철사처럼 가는 가지에 빨간색 꽃이삭이 피어나 이삭여뀌라 불리운다

며느리밀싹개

- 고부간의 갈등을 다룬 웃픈 이야기가 있다.
옛날 어느날 홀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아들을 빼앗겼다고 질투하여 불일 보고난후 며느리에게 가시가 주렁주렁 달린 며느리밀싹개풀 을 주었다고 한다.

까마귀밥

- 빨간 열매를 까마귀나 다른 새들이 좋아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쑥부쟁이

- 부지쟁이라고도 하고 가을에 피는 국화의 대표로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해 살이 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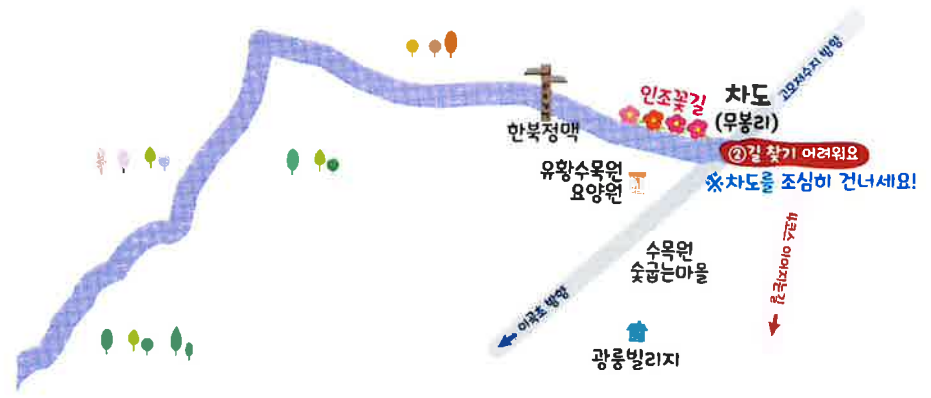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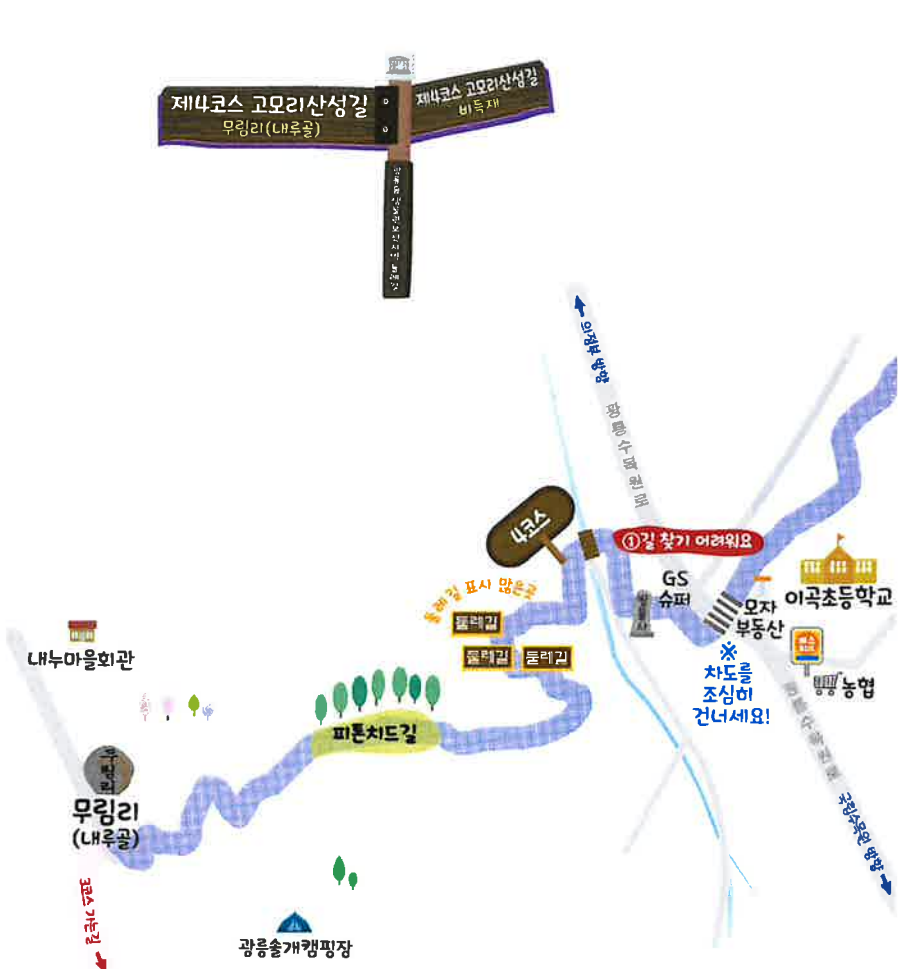
누리장나무

- 냄새가 고약하여 개똥나무인데 누리내나무라고 한다



광릉숲 둘레길 스케치





무림리(내루골)~차도(우봉리) 3.4km



21번 소흘읍(이곡초 근방) 모자부동산 앞 (종간지점 할류)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866

난이도 ★★★★★ 최상 : 당신은 강철 체력!

길 찾기 어려워요

① 상봉사 가는길에 들레길 이정표가 없어 길찾기가 힘들어요.
 짧은 다리를 건너면 왼쪽 **돌레길** 푼말이 있지만 입구 찾기가 어려워요
 라 차도를 건너 담 사이 길로 올라가세요.
 계단을 오르면 가파른 길이 나와요.

지도 중요 팁 TIP

- ▶ 모자부동산 앞에 4코스 올라가는 이정표가 있어요.
- ▶ **※차도를 조심히 건너세요!**
- ▶ 4코스에는 졸참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가 많아요.



무림리(내루골)

산으로 둘러싸인 자연마을로 본래 숲이 무성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무림이라 일컫고 내루골은 내루리라고도 하며 무림 남동쪽에 위치한다.

어느날 한 도사가 나타나 이부락은 안방의 다락같이 생긴 형국이므로 내루동이란 이름으로 사는 것이 좋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도사가 "느티나무 지평이를 꽃이 놓고 여기에 우물을 만들어 그 물을 먹고 살아가면 좋을 것이다. 또 이 느티나무도 얼마

안 있으면 잎이 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지금도 우물과 느티나무가 있다 길을 걷다 마을을 만나고 그 마을에 내려 오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될 듯하다.



피톤치드길(잣나무, 전나무가 울창한 숲길)

광릉숲 둘레길 스케치

광릉숲둘레길





노고산-고모산성 끝에

노고산으로 오르는 산길은 호젓한 숲길로 정상에 도착 할 동안 산성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포천시에서 고모리산성 안내판을 세워줘서 산성이 있었던 자리였음을 알 수 있다
 왜 노고산에 산성을 쌓았을까?

옛 교통로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비득재는 북쪽의 철원지역과 한강 유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로 였다.

비득재를 넘으면 광릉-퇴계원-구리 아차성-광나루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출하려는 세력이나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출하려는 세력은 모두 비득재를 이용해야 했다. 고모리 산성은 이와 같은 교통의 요지를 방어하는 목적에서 축조된 성이었다.

수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이 길들을 걸으며 지나간 역사를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며 우리는 오늘도 삶을 한 수 배우게 된다.

고모리산성 (抱川 古毛里山城)



고모리산성은 고모리에서 직동리로 통하는 고개인 비득재(해발 254m)에 위치한 고모산(일명:노고산 해발 380m)에 자리 잡고 있으며 2002년 9월 16일 경기도의 기념물 제185호로 지정되었다.

현재 대부분 붕괴되어 정확한 성벽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우나, 전체 둘레는

822m이고 대부분 흙으로 쌓은 토성이다.(일부는 토석혼축으로서 그 흔적이 남아있음) 성의 전체적인 형태는 남북으로 긴 변형된 장방형 형태로서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형상을 하고 있어 남쪽(한강일대)에서 북쪽(포천, 철원)으로 침입하는 적을 방어하기 위한 산성으로 판단된다. 건물지에서는 삼국시대 초기(백제 초기)에 해당하는 연질토기가 다수 출토되어 산성의 축조시기를 밝히는데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단국대 매장문화재 연구소에서 발표한 포천 고모리 산성 지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고모리 산성은 3세기 초에 쌓은 한성백제 산성이며 지금까지 조사된 남한지역 산성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다고 한다서기 200년 무려 축조가 끝난 송파 풍납토성과 거의 같은 시기라고 보았다

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천년의 세월을 훨씬 더 넘어 수많은 선조들의 흔적을 만날 수 있음이 신비롭다.

고모리 산성에 올라가는 가장 편한 길은 고모리에서 직동리로 넘어 가는 고갯길인 비득재이다. 비득재는 현재 두 산을 잇는 생태 통로가 조성되어져 있어 이곳에서 오른쪽 노고산 정상 방향으로 올라가면 된다.



송전탑 근처에 돌담이 많아 오르내릴때 조심해야 하는 곳



한북정맥

백두대간의 추가령(楸哥嶺)에서 갈라져 남쪽으로 한강과 임진강에 이르는 산줄기의 옛이름으로 조선 시대 우리 조상들이 인식하였던 산줄기 체계는 하나의 대간(大幹)과 하나의 정간(正幹), 그리고 이로부터 가지를 친 13개의 정맥(正脈)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북정맥은 휴전선 이북 백두대간 식개산에서 갈라져 남한과 북한에 걸쳐 있는 유일한 정맥이다. 조선시대 여암 신경준이 편찬한 <산경표>에 의거해 남한 최북단인 수피령부터 시작해 장명산까지 도상거리 약 161.6km를 한북정맥이라 일컫는다.

길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길에서 길에게 묻는다고 했던가? 광릉숲 둘레길 4코스를 걷다보면 한북정맥길과도 만나게 된다. 비득재가 있는 노고산, 고모산성길이 그러하다.

비득재

고모리로 통하는 장령(長嶺)의 모습이 흡사 비둘기가 나는 모습과 같다 하여 鷹宙換嶽라 일컫는다. 한자어로는 구현(鳩峴)이라고 한다.



비득재는 민족 정기를 이어온 약 290km의 한북정맥 중 한 구간으로 소흘읍과 고모리 직동리를 잇는 중요한 고개마루로 한북정맥 등산객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소흘읍 고모리의 노고산과 죽엽산에 사이에 두고 형성된 고개인 비득재는 북쪽에서 발원한 하천은 포천천과 영평천을 거쳐 한탄강으로 유입되며 남쪽에서 발원한 하천은 왕숙천을 거쳐 한강으로 유입된다. 현재 비득재가 있는 고모리에는 고모저수지를 중심으로 많은 음식점과 카페들이 들어서 있어 서울 근교 드라이브 길로 유명하다.

여섯 형제 참나무

모자가 많은 삼형제
 · 신갈 : 짙은 바닥에 깔고 다님
 · 갈참 : 늦게까지 잎이 달려 있음
 · 줄참 : 도토리개 제일 작아 줄참!
 가장 맛있습



모자에 털이 많은 삼형제
 · 상수리 : 임금님 상에 올라간 열매
 · 굴참 : 굴피집을 지을 때 껍질 사용
 · 떡갈 : 떡을 써서 보관할 수 있어 떡갈!



고모리산성길에서 만난 식물들

길이 어려운 4코스 그 중간 지점에서 만난 식물
 어려운 길에 만나는 기본종은 선물이다.



광릉숲 둘레길 스케치



광릉숲 둘레길 8코스 전체 지도

광릉숲 둘레길 8코스 전체 지도



- | | | |
|--|--|--|
| <p>1 옛사랑길
13.0km / 5시간 10분
전집중학교 - 빛내연주민센터</p> | <p>2 종말고갯길1
7.0km / 3시간 10분
빛내연주민센터 - 무지팡이약수터</p> | <p>2-1 종말고갯길2
5.2km / 2시간 10분
빛내연주민센터 - 비루고개</p> |
| <p>3 웅암산성상길
3.1km / 1시간 30분
무지팡이약수터 - 무림리 (내루굴)</p> | <p>4 고모리산성길
5.6km / 2시간 40분
무림리 (내루굴) - 비득재</p> | <p>5 양속천물내음길
8.4km / 4시간 20분
진정중학교 - 미영1리미들회관</p> |
| <p>6 죽엽산길
7.4km / 미조상구리
미영1리아울회관 - 비득재</p> | <p>7 산림욕길
7.7km / 3시간 10분
생태습지 - 이곡초등학교</p> | <p>8 고모리길
2.6km / 50분
적중삼거리 - 비득재</p> |

꼼꼼한 안내지를 만든사람들

발행 행복한진접문화네트워크

기획 진접속깊은여행 동아리
생활문화예술협동조합 나외유

발행일 2021년 10월

후원 광릉숲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광릉숲둘레길 꼼꼼한안내지는



광릉숲생물권보전지역 주민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